

비운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사도신경
찬 송 272장

다함께
다함께

1.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2.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 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3. 교만한 맘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4.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 다라서
영광의 주를 뵈오려고 주께로 갑니다

기 도
성경봉독 요한복음 9:1~7

말씀이
다함께

¹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
지라 ²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³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⁴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
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
느니라 ⁵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⁶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⁷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
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I 삶 나누기

한 주간의 삶과 QT,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간단히 나눕니다.

비운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2025. 8. 31. 주일예배 설교

“세상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관점”

사람이 자기 인생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는 인생 전체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맹인)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2절)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세계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거나 비극적 운명으로 태어나면, 이를 자신 혹은 가족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인과응보사상입니다.

※ 당시 사람들은 모든 것에는 다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인과응보사상).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신 새로운 세상”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세상 환복판에,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3절). 그리고는 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도록 하십니다. 그가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눈을 뜨고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치유 장면은, 인생은 도덕적 자판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악을 뿌리면 악으로 거두고, 선을 행하면 선으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이 경험한 세상은 이런 세상(인과응보의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 인과응보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그가 다시 보게 될 때까지 그가 한 일은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에게서는 그 흔한 믿음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우연히 이 빛 되신 예수님의 눈에 떨어진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주님 눈에 발견되었다는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나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는데, 다시 보게 되었다? 이를 가리켜 은총이요, 은혜라 부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 1:4).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에 노출되는 순간, 죽은 것이 살아나고, 시든 것은 힘을 얻고,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는 빛이 임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주님 눈에 발견되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인생의 고통이 여전한 듯 보이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막 1:15). 예수님으로 인해, 본격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바로 그 은총의 자기장 안에, 오늘 이 시각장애인의 인생도 놓여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어떠한 죄와 죽음도, 믿는 자들을 결코 삼키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에는 불행도 있고, 고통도 있으며, 한숨과 절망도 있지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듯이, 인간이 당하는 그 어떠한 고통도 하나님 은총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 인간이 당하는 그 어떠한 고통도 하나님의 은총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결론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이 내 죄 때문도 아니고,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도 아니라면, 원인을 묻지 마세요. 원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3절). 이 말씀을 믿으시고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 때문에라도,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오늘 시각 장애인에게 하신 행동처럼, 주님은 잘 납득되지 않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충만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가 변하여 화관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나눔

- ① 아래의 지문은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 핵심이 되는 단어를 빈 칸에 넣어보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점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 말해봅시다(p.2).

제자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의 ○로 인함이니까” (요 9:2) (누구, 죄)
예수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이 ○○○○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요 9:3) (하나님, 하시는 일)

- ② 시각장애인의 눈이 떠져 보게 될 때까지 그가 스스로 했던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의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p.3上).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잠시 생각해보고, 나누어 봅시다.

- ③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p.3下). 이제는 어떠한 죄와 죽음도 하나님의 은총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직히 고백해보고, 이를 위해 기도제목으로도 표현해 봅시다.

- ④ 그 외에 이번 공과가 주는 은혜, 위로, 격려, 혹은 도전이 있다면 나눠주시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